

KCC, 현대주식 매입 1289억원 차익

3472억원 출자해 최근 평가액 4761억원 ... 향후 투자효과 확대 기대

금강고려화학(KCC)가 2003년 6월 이후 현대중공업 등 현대 관련사에 총 3472억원을 출자해 총 1289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했다고 밝혔다.

KCC는 11월24일 공시를 통해 현대가 기업들에 대한 출자 손익현황을 공개하고 “지금까지 현대자동차, 현대중공업, 현대모비스, 현대산업개발, 현대엘리베이터, 현대상선 등 현대 관련사에 총 3472억원을 출자해 11월21일 종가 기준 평가액이 총 4761억원에 달했다”고 설명했다.

KCC는 “현대 관련주 취득에 따른 투자수익률이 약 37%에 달해 객관적인 지표로 판단할 때도 확실한 자산 증대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투자기업의 미래가치를 감안할 때 앞으로의 투자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”고 밝혔다.

<Chemical Journal 2003/11/25>